

아리스토텔레스가 원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

-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몇 세기에 걸쳐서 교회, 국가, 공동체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려고 투쟁해 왔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심한 외로움을 얻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기분이 좋거나 고통이 없는 것 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 고 했는데, 이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는데서 오는 기쁨을 말한다.
-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정의 최고 형태는 정치적이거나 시민적인 차원에서의 우정이다.
- 인간은 블로그나 위키피디아처럼 이익이 나지 않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 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견한 것처럼 인간은 의미, (무언가에)속달, 참여, 착월성, 재미등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다. 좋은 사회는 시민들이 그런 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 현대철학은 가톨릭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보통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대신할 것을 주지는 못했다.
- 기독교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필적할 만한 총체적 철학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한 유일한 계몽주의 철학이 마르크스주의였다.
- 20세기에 마르크스주의가 지배하던 사회에 나타난 잔혹한 현실은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꿈꾸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구소련과 마오쩌둥이 이끌던 중국공산당 정권이 너무나도 잔악한 폭정을 일삼는 바람에, 20세기 후반기에 서양의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행복과 만족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훨씬 제한된 국가 개념을 받아들였다. 국가는 야간경비원으로서 국민의 신체적,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되, 그들이 행복해질지는 스스로 결정하게 놔둬야 한다. 벌린은 국가는 국민의 ‘부정적 자유’,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각자가 ‘ 긍정적 자유’ 즉 좋은 삶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추구하게 놔둬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국가는 국민의 사적인 삶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야 하고, 국민의 영혼을 치유하려 들거나 특정한 성취라는 개념으로 국민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 지금 서양사회는 다원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를 넘어서 중세 기독교 국가들에 가까운 정치적 비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다. 오늘날의 정치가들은 사제와 성직자들 대신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오늘날 긍정심리학은 좋은 삶에 대한 처방을 내리지 않고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 묘사할 뿐이라고 말한다. 긍정심리학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 주지 않으며, 단지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행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측정한다.
- 셸리그먼과 그의 정치적 후원자들은 ‘객관적 과학’을 정립하면서도 도덕적 가부장주의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열망을 담아 도덕적 판단,윤리적 논쟁,자유로운 선택은 쏙 빼버린 채 좋은 삶의 모델을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 그 세 요소는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측면들인데 말이다.
- 고대 그리스철학이 우리에게 좋은 삶의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 모델들은 모두 모두 소크라테스의 주요 신념, 즉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으며, 합리적 철학을 통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 각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삶’에 대해 가르치고 싶다면, 다양한 윤리적 접근법들을 하나의 그릇에 쏟아붓고 휘저어서 차이점이나 특징이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 말고, 그 접근법들을 각각 가르치고, 그 차이점과 논쟁점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 장 바니에는 그리스철학이 완벽한 합리성과 자부심이라는 이상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너무 독립적이고 너무 자율적이고 너무 다치지 않으려고 하면 외로워지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 바니에는 외로움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이라고 쓴 적이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일부분 우리가 결점이 있으며, 분완전하고 상처 입은 존재임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하는 데서 온다고 했다.

- 장애인들에게서 공통된 인간성을 배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장애가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 바니에의 철학은 만남, 관계, 진정한 우정, 사랑에 기초를 둔다. “좋은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자신이 더 낫다고 입증하지 않아요. 그 대신 공통의 인간성에 대해 숙고하고 우정을 만들어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살고 함께 춤추면서 삶을 즐기게 해주는 사회예요, 그리스철학에서는 춤을 별로 추지 않았죠.”

바니에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우정, 진정한 철학공동체는 작고 친근한 규모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칼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정부가 좋은 삶에 대한 살아 있는 철학을 생명이 없고 관료주의적이며 강압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실수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